

Analysis of workers' perception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Jeong-Hwa Park*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o confirm the perception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by mental health service providers.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vocational ability for the mentally disabled, family support, worker competence, and worker needs, targeting 132 workers at the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and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y, which are mental health service institutions in A Metropolitan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technical knowledge,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1.0 program. In the end, the workers' desire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mentally disabled of workers in mental health service institutions was higher in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than in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and the competence of work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vocational skills and family support of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Therefore, it will be possible to ultimately promote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mentally disabled by strengthening the capacity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of mental health service providers in the future.

▶ **Key words:** Vocational rehabilitation, Mentally disabled, Worker's perceptio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하는 것이다. D광역시의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132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가족지지, 종사자 역량, 종사자 욕구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독립된 t 검정,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종사자 욕구는 정신재활시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보다 높게 나타났고, 종사자의 역량이 정신장애인 직업능력이나 가족지지에 비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직업재활, 정신장애인, 종사자 인식

-
- First Author: Jeong-Hwa Park, Corresponding Author: Jeong-Hwa Park
 - Jeong-Hwa Park (jhpark2030@pcu.ac.kr), Dept. of Nursing Science, Paichai University
 - Received: 2020. 11. 27, Revised: 2020. 12. 24, Accepted: 2020. 12. 29.

I. Introduction

1. Background

2017년 장애인고용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장애인 2,511,051명중에서 정신장애인은 100,069명으로 전체 장애유형 중 여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노동연령(30~59세)이 75.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약물치료로 정신증상이 조절되면 다양한 직업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용률이 매우 낮아서 사회로부터 철회되는 경우가 많다[2].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의 의미는 생계유지라는 경제적 독립의 의미뿐만 아니라[3],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2, 4].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5].

또한 최근 입원 위주의 만성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편이다[6]. 이는 정신질환의 재발과 증상악화로 이어져 악순환이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지체계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목표, 혹은 성과의 지표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 정신장애인의 직업활동은 정신질환의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7].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들에게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 지지적인 환경의 제공을 통하여 직업을 갖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회복의 중요한 척도이다[8]. 또한 정신장애인의 직업활동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게 되며 생산성과 독립성의 회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며 사회 환경적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어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재활을 달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9].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는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종사자에 의해 취업 전 훈련, 보호작업,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10].

선행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으로서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 가족환경으로서 가족지라고 보고하고 있다[11]. 또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

활에 전문가의 영향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6],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의 종사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해 나간다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효과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와 사례연구가 대부분이고[1-2, 5, 11],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신장애인, 가족, 재활스텝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가족과의 관계, 직업능력 인식을 조사 거하거나[7], 일 지역 경영자[12]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13]의 인식조사 연구에 그친다.

이에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 및 욕구를 파악하고 조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실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및 발전방향 지원과 향후 정신건강 복지사업 정책수립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Objectives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자가 인식하는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 가족지지, 종사자의 역량이 종사자의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가 인식하는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 가족지지, 종사자의 역량, 종사자의 욕구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종사자 욕구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가 인식하는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 가족지지, 종사자의 역량, 종사자의 욕구 간의 관련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가 인식하는 종사자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Methods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정신건강서비스 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종사자가 인식하는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 가족지지, 종사자의 역량, 종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종사자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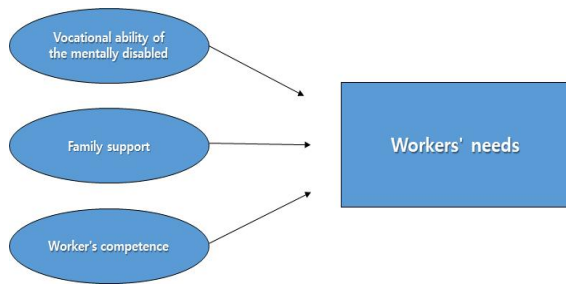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2. Subjects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A광역시에 소재한 정신건강복지센터 6개 기관과 정신재활시설 29개 시설의 직업재활 사업의 진행여부 및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135명이었다. 본 연구의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요인 최대 10개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을 경우 최소 107명이 요구되었으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아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전수를 조사하기로 하고 총 13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결과 13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에 대해서는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이 불충분한 3부를 제외하고 132명을 최종 분석 대상을 하였다.

3. Instruments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Lee 등[7]이 개발한 5점 Likert 척도방식의 도구를 정신과 전문의 1인, 정신간호학과 교수 1인, 정신재활시설 센터장 1인으로부터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문항의 내용과 구성을 수정 보완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문항 9개, 직업재활에 관한 가족 지지를 질문하는 문항 4개, 직업재활 담당자로서의 종사자의 역량에 관한 문항 13개,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문항 6개 모두 32개 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4. Data Collection and Ethical Consideration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P대학 IRB승인 후 (PCU IRB 2017-04)인 2017년 6월 19일부터 6월30일까지였다. 설문 조사에 앞서 본 연구자가 D광역시 소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와 정신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공문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기관별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동의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기관소속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담당 종사자 중 설명문을 읽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동의를 한 종사자는 설문내용의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설문에 응답 후 설문지 회수봉투에 넣어 봉한 후 설문지 수거용 장소에 두도록 하였다. 설명문에는 연구 참여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연구 자료는 정해진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 처리되어 비밀을 보장함을 기술하였다. 수거용 장소에 둘 때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설문지와동의서를 각각 따로 두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거나 반송용 봉투를 제공하여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5. Data Analysis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각 변수들은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종사자의 인식의 차이는 독립된 t-검정, 일원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종사자가 인식하는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 가족지지, 종사자 역량, 종사자 욕구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인식하는 종사자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에서 .80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668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624~.962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 또한 1.040~1.602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3).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Difference of Worker's nee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32)

Variable	Classification	N	%	Mean±SD	χ ² /t	p
Organ type	Center	50	37.9	3.80±0.43	1.86	.159
	Facility	82	62.1	3.95±0.46		
Age (year)	20~29	18	13.3	3.83±0.27	0.11	.980
	30~39	50	37.0	3.90±0.47		
	40~49	35	25.9	3.91±0.47		
	50~59	24	17.8	3.91±0.52		
	≥60세 이상	8	5.9	3.85±0.46		
Sex	Male	41	30.4	4.00±0.49	0.54	.466
	Female	94	69.6	3.85±0.43		
Education	Diploma	14	10.4	3.73±0.40	1.03	.384
	Bachelor	82	60.7	3.89±0.46		
	Graudate school	39	28.9	3.97±0.47		
Occupational type	Doctor	2	1.5	3.73±0.19	0.80	.573
	Nurse	6	4.4	4.21±0.18		
	Social worker	49	36.3	3.88±0.48		
	Clinical psychologist	1	0.7	3.87±0.40		
	Mental health nurse	25	18.5	4.04±0.00		
	Mental health S.W.	51	37.8	3.88±0.46		
	Mental health C.P.	1	0.7	3.89±0.45		
Educ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Yes	59	43.7	4.04±0.00	0.02	.894
	No	76	56.3	3.95±0.49		
Duration of mental health work (year)	≤5	62	45.9	3.85±0.42	1.43	.230
	6~10	40	29.6	3.85±0.37		
	11~15	22	16.3	3.89±0.47		
	16~20년	8	5.9	4.01±0.55		
	≥20	2	1.5	3.82±0.60		
Dur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Month)	0	65	48.1	4.35±0.57	0.82	.516
	≤24	34	25.2	3.78±0.39		
	25~48	17	12.6	4.01±0.50		
	49~72	9	6.7	3.98±0.36		
	≥73	6	4.4	3.85±0.66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Perason Correlation of Major Study Variables (N=132)

Variables		Mean±SD		F(p)	1	2	3	4
1. Vocational ability of the mentally disabled	Center	3.86±0.33	3.82±0.50	11.792(.001*)	1			
	Facility	3.79±0.58						
2. Family support	Center	3.47±0.56	3.28±0.66	1.196(.276)	.44**(.000)	1		
	Facility	3.17±0.70						
3. Worker's competence	Center	3.41±0.30	3.51±0.34	1.163(.283)	.54**(.000)	.26*(.003)	1	
	Facility	3.58±0.35						
4. Worker's needs	Center	3.80±0.43	3.90±0.45	1.271(.262)	.44**(.000)	.25*(.003)	.55**(.000)	1
	Facility	3.95±0.46						

*p<0.05, **p<0.01

III.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50명 정신재활시설은 82명이었고, 연령은 30대가 50명(37.0%)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가 94명(69.6%)로 더 많았고, 학사가 82명(60.7%)로 가장 많았다. 직종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51명(37.8%)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사가 49명(36.3%), 정신건강간호사가 25명(18.5%) 순이었다. 직업재활 교육경험은 59명(43.7%)가 있다고 답하였고, 정신건강근무기간은 5년 이내가 62명(45.9%), 6-10년이 40명(29.6%), 11-15년이 8명(5.9%)순이었다. 직업재활 근무기간은 65명(48.1%) 이 없다고 답하였고, 24개월 미만이 34명(25.2%), 25-48개월이 17명(12.6%)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종사자가 인식하는 정신장애인 직업능력은 평균 3.82 ± 0.50 점이었으며, 센터 3.86 ± 0.33 점, 시설 3.79 ± 0.58 점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792$, $p=.001$). 가족지지는 평균 3.28 ± 0.66 점이었으며, 센터 3.47 ± 0.56 점, 시설 3.17 ± 0.70 점이었고, 기관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사자 역량은 평균 3.51 ± 0.34 점이었으며, 센터 3.41 ± 0.30 점, 시설 3.58 ± 0.35 점으로 나타났고, 기관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사자 욕구는 평균 3.90 ± 0.45 점으로 높았고, 센터 3.80 ± 0.43 점, 시설 3.95 ± 0.46 점으로 기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 가족지지 정도, 종사자 역량, 종사자 욕구의 상관관계에서 종사자 욕구는 직업능력, 가족지지, 종사자 역량과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44$, $p=.000$; $r=.26$, $p=.003$; $r=.54$, $p=.000$), 이 중 종사자 역량의 상관계수가 0.54로 상관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역량과 직업능력, 가족지지가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52$, $p=.000$; $r=.25$, $p=.003$), 직업능력과 가족지지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45$, $p=.000$)(Table 2).

3. Difference of Worker's nee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종사자가 인식하는 종사자 욕구의 차이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등분산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기관유형($F=1.86$, $p=.159$), 연령($F=0.11$, $p=.980$), 성별($F=0.54$, $p=.466$), 교육정도($F=1.03$, $p=.384$), 직종($F=0.80$, $p=.573$), 직업재활의 교육경험($F=0.02$, $p=.894$), 정신건강분야 근무기간($F=1.43$, $p=.230$), 직업재활 근무기간($F=0.82$, $p=.516$)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종사자 욕구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4. Influencing Factors on Worker's needs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서 잔차모형이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종사자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과 정신장애인 직업능력, 가족지지, 종사자 역량을 투입하여 회귀분석 예측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종사자 역량($\beta=.408$, $p=.000$)이 종사자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31.4%로 나타났다($F=20.962$, $p=.000$)(Table 3).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Worker's needs (N=132)

Variables	B	S.E	β	t	p	공차	VIF
(Constants)	1.109	.354		3.133	.002	.624	1.602
Worker's competence	.578	.115	.434	5.040	.000	.730	1.370
Vocational ability	.162	.084	.178	1.918	.057	.768	1.302
Family support	.041	.055	.060	.747	.457	.962	1.040
Adjusted R ² =.314 F=20.962 p=.000							

IV. Discussion

본 연구는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종사자 욕구 정도를 확인하고, 정신장애인 직업능력, 가족 지지정도, 종사자 역량이 종사자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종사자의 욕구는 5점 만점에 평균 3.9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유사한 연구로서 직업재활의 효과성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서비스 종사자의 욕구가 낮게 나타난 Lee 등[7]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 이는 최근 정신건강 분야에서 정신복지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정신장애인의 탈수용화와 재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힘입어 정신건강서비스 종사자들 또한 직업재활이 필요하다는 변화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인식은 본 연구에서 3.82로 나타났는데, Lee 등[7]의 연구에서 정신장애인 직업능력이 3.51에 비해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역 경영자에 대한 연구에서의 발병전보다 쉬운 직업이 적절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 능력에 맞는 일을 잘 할 것이라는 결과[12]에서처럼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그들의 직업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필요함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종사자 역량은 3.51이었는데 이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 스스로 부족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3, 14]. 따라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은, 가족지지, 종사자 역량, 종사자 욕구 모두에서 5점

만점 중 3이상의 중간 이상의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은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은 높고 이에 대한 종사자의 욕구 또한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정신장애인의 가족지지가나 종사자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능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들이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들보다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센터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의 차이이거나 센터의 종사자들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희망적 인식의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종사자가 인식하는 정신장애인의 가족지지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가족의 욕구나 정서적 지지는 매우 높으나 가족들이 직접 개입하는 픽업 등의 편의제공, 교통비, 식비 등 경제적 도움 등은 낮은 편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은 센터와 시설에서 직업재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길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들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종사자 역량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종사자들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참여하고자 할 때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이수가 필요하고, 위기중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은 매우 필요한 서비스이고 직업재활이 가능하지만 다른 장애보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어렵다고 인식하며 이런 직업재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가족지지의 차이에서 근무기관, 직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센터가 시설보다 가족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의 가족모임 등의 가족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많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직업재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꾸준한 가족모임 및 가족교육, 가족상담 업무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적으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종사자 욕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사자 욕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 종사자 역량($t=5.040, p=.000$)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 대상 교육 및 훈련 정보교환 등의 사업을 구축하고 직업재활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을 함으로써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강화가 결국 종사자 욕구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기에[12, 15, 16], 궁극적인 직업재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종사자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서비스 종사자의 욕구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한다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이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종사자 욕구 정도를 확인하고, 종사자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욕구는 5점 만점에 평균 3.91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재활시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욕구의 하부 요인들 중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장기근속을 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꼭 찾아주고 싶다'가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에서 종사자 역량, 정신장애인 직업능력 가족지지가 종사자 욕구를 31.4% 설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지지를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연구 설문대상자의 범위로 인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확률표집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반복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종사자 욕구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의 유형에 따른 종사자의 욕구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주는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등의 개선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7 Statistics of the disabled. 2017.
- [2] Garske G, Stewart Jay. Stigmatic and Mythical Thinking: Barriers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Persons with Severe Mental Illness. *J Rehabil.*, Vol. 65, No. 4, pp. 4-8, October-December 1999.
- [3] William CT, Kim TM, Gregory HM, Robert ED. Self-Esteem as an Outcome Measure in Studie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Adul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Vol. 51, pp. 229-233, February 2000. DOI: 10.1176/appi.ps.51.2.229
- [4] Dunn EC, Wewiorski NJ, Rogers ES.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employment to people in recovery from serious mental illness. Results of a qualitative study. *Psychiatr Rehabil. J.*, Vol. 32, No. 1, pp. 59-62, Summer 2008. DOI: 10.2975/32.1.2008.59.62
- [5] MH, Han, JW, Kim, D.Y., Kim, H.S., Park, HS, Park, TY, Hwang, Yg, Seo, SJ, Kim, WY, Im, SM, Lee. Current Stat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for Individuals with Disabling Mental Illnes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Vol. 25 No. 2, pp. 145-152, 2017. DOI: <https://doi.org/10.22722/KJPM.2017.25.2.145>
- [6] E. K. Byun, S. J. Yoon, S. S. Choi. The factors influence upon job maintenance of the mentally disabled with job experience. *Korean J Occup Health Nurs*, Vol. 1, No. 1, pp. 18-26, 2012. DOI: <https://doi.org/10.5807/kjohn.2012.21.1.18>
- [7] D.Y. Lee, S.W. Lee, H.J. Park. A Study on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Awareness Leve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mong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heir Families, and Rehabilitation Staff.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13, No. 1, pp. 147-168, 2003.
- [8] K. H., Ha.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employment rates of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6, No. 4, pp. 115-135, 2015. DOI: <http://dx.doi.org/10.16999/kasws.2015.46.4.115>
- [9] Lloyd, C., & Waghom, G. The importance of vocation in recovery for young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70, No. 2, pp. 50-59, February 2007. DOI: <https://doi.org/10.1177/030802260707000202>
-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ental Health Business Guid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 [11] J.S. Ryu.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job maintenance for the Mental disorders. Seoul women's univ. master's thesis. 2003.
- [12] S.Y.J, Kim, Y.K. Kwag, L. Gum. A Study on Managers' Percep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Vol. 17, No. 2, pp. 191-203, 2008.
- [13] S.W. Son. A Study on the Attitude towards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mong Mental Health Professional. Daegu Univ. master's thesis.
- [14] L. Hansson, H. Jormfeldt, P. Svedberg & B. Svensson.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 do they differ from attitudes held by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Vol. 59, No. 1, pp. 48-54, September 27 2011. DOI: <https://doi.org/10.1177/0020764011423176>
- [15] M. Kim, G.Y. Lee, S.J. Chok. The Effects of Vocational Counseling Interventions for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pp. 253-274, 2015. DOI: <http://dx.doi.org/10.15870/jsers.2015.12.54.4.253>
- [16] H.C. Choi, E.M. Bae, S.G. Shin, D.J. Park. A Study on the Strategic Plan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in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Based on the Focus Group Interview(FGI)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actition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10, pp. 479-490,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10.479>
- [17] YM, Kim, YH, Lee.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or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pp.1129-1144, Vol.29, No.4, August, 2018. DOI <http://dx.doi.org/10.22143/HSS21.9.4.79>

Authors



Jeong-Hwa Park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Nursing from Yonsei University, Korea, in 1996, 2004 and 2010, respectively. Dr. Park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Konyang

University, Seoul, Korea, in 2012.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Paichai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suicide prevention, mental health in the community, health communication